

# 20세기 초 자탄가 속 자기 서사에 재현된 기억과 욕망 표현의 의미\*

유 정 선\*\*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자료 소개 및 작품의 구성
- III. 가문 대 개인으로서의 나, 집단적 정체성과 개인적 자아
- IV. 정서적 경험의 고백과 아내로서의 욕망
- V. 삶의 재현, 도덕적 책무감과 자기 욕망의 표현
- VI. 맺음말

**국문초록** | 20세기 초반 규방가사 작가들은 자탄가의 문학적 전통에 기대어 자기 삶의 이력을 술화한다. 본 연구의 대상 작품은, 자탄가 중 1910~1930년대에 창작된 6편의 자기 서사 가사이다. 작품 속 창작 동기는 노년의 회고와 남편의 죽음이며, 특히 남편의 죽음은 자신이 상실한 욕망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자기 서사 가사들은 가문을 앞세우는 집단적 자아와 개인의 욕망을 의식하는 개인적 자아 사이의 진자운동을 보여준다. 초기 작품들에서 작가들은 집안 안주인으로서의 책무감을 앞세우고 있는 반면, 이후에 지어진 작품들에서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5003)

\*\* 柳貞先.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연구원, ly1338@hanmail.net  
투고일: 2024. 11. 18. 심사완료일: 2024. 12. 22. 게재확정일: 2024. 12. 2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7..179>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자각하고 표현한다.

자탄가의 전통 속에서 고백 주체인 '나'는 경험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슬회하되, 정서적 경험을 중심으로 회상한다. 이때 정제된 언어보다는 비유기적 구성과 다층적 기법을 자기표현의 장치로 활용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견인하는 존재는 남편이며, 남편을 향한 감정과 욕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당대에 규방가사 작가들은 계몽의 대상, 나아가 구여성이라 호명됨으로써 수동적이고 정제된 여성으로 규정되고 타자화되었다. 당대 유행한 서사에서 그 목소리가 생략되었던 여성인 작가들은 자기 서사 가사를 통해서 자신의 욕성을 들려준다. 이 시기 자기 서사 작가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한다. 그리고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부부간 정(情)과 행복이라는 자기 존재의 욕망을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핵심어** | 자탄가, 구여성, 자기 서사, 20세기 초, 집단적 정체성, 개인적 자아, 정서적 경험, 남편, 아내, 도덕적 책무감, 욕망, 표현

## I. 문제의 제기

20세기 초반 규방가사의 작가들은 자탄가(또는 탄식가)의 문학적 관습을 활용하여 자기 삶의 이력을 노래한 자기 서사 가사들을 짓는다. 자탄가 내 자기 서사 가사는 탄식의 정조 속에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반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자기 서사란 자신의 일생이나 혹은 특정 시점까지의 삶을 전체로서 고찰하고 성찰<sup>1)</sup>하는 내용으로, 자기 삶의 이력을 읊은 작품들이다.<sup>2)</sup>

자탄가 속 자기 서사 가사에서 작가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 근대를 통과하며 대부분의 보편적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었

---

1) 박혜숙 최경희 박희병, 「한국 여성의 자기 서사(1)」, 『여성문학연구』 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7~28쪽.

2) 연구자에 따라서 일대기 가사, 자전적 가사, 자기표현 가사, 자전적 슬회 가사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고, 신여성의 출현 후에는 구여성으로 호명되면서 낮은 가치를 부여받은 '정체(停滯)'된 여성이자, 때로는 현모양처의 모범상으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며 타자화 되어왔다. 반면에 이 자탄가 속 자기 서사 가사는 이러한 보편적 여성들이 자기 삶의 경험과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탄가 내 자기 서사 가사 작품 6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대상 작품은 <어느 여자탄가> · <소회가> · <대동가> · <다전김씨 부인> · <이씨회심곡> · <부녀자탄가>의 6편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자탄가 중 일대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계열을 여자탄식가의 기본형으로 명명하고, 창작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 5편을 대상으로 그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일대기 가사는 여성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일생을 객관화시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sup>3)</sup>

이어 개별 작품론의 시각에서 <이씨회심곡>과 <부녀자탄가>를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이씨회심곡>의 경우, 작가가 유년의 자기에, 결혼 후의 불편한 고독과 기억, 죽음이 가져온 부재 등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4)</sup> 또한 <부녀자탄가>는 당대 식민지 조선 여성의 경험과 서정을 사실적으로 증언해주는 다큐로 기능<sup>5)</sup>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개별 작품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 경험의 분석을 통해서 삶의 고비마다 느낀 서정의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탄가 내 자기 서사의 흐름 속에서 개개 작품이 갖는 위상의 문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

3) 최규수, <여자자탄가>의 자료적 실상과 특징적 면모, 『어문연구』 43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289~300쪽.

4) 이은화 · 김윤희, 「20세기 초 내방가사 <이씨회심곡(李氏懷心曲)>의 자기서사와 부재를 기억하는 방식」, 『고전과 해석』 26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8, 306쪽.

5) 고순희, 「일제강점기 일본 경험과 규방가사」, 『동북아문화연구』 제3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153쪽.

이에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로서 '사실적 경험의 재현과 거기서 드러난 서정이 갖는 의미'는 당대적 문맥 속에서 그 흐름을 고찰할 때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정체성의 확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자기 서사 가사의 전개라는 좌표 속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탄식의 정조를 바탕으로 한 자기 서사 가사는 당대에 유행하는 서사 속에서 생략되고 침묵되었던 여성인 작가들이 자신의 육성으로 들려주는 삶의 노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작가가 당대에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와 마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Ⅱ. 자료 소개 및 작품의 구성

본 연구 대상 자료는 자탄가 중 일대기 구성을 지닌 자기 서사 가사로서, 20세기 전반인 1910년대~30년대에 지어진 6편의 가사이다. 이중 가사문학관 DB 작품 4편인 <어느 여자탄> · <소회가> · <대동가> · <다전김씨부인>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들이다.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표<1>)

〈표1〉

대상작품	저자	창작시기	출전
①어느 여자탄	이사호	1910년대 <sup>6)</sup>	「내방가사자료」 <sup>7)</sup>
②소회가	김부인	1914	한국 가사문학관 소장 미해제본 DB
③대동가	손부인	1915	한국 가사문학관 소장 해제본 DB

④다진김씨부인	경주 김씨	1926	한국 가사문학관 소장 미혜제본 DB
⑤이씨회심곡	이호(李鎬)	1930	『경북내방가사 1』 <sup>8)</sup>
⑥부녀자탄가	진성 이씨	1933	『낭송가사집』 <sup>9)</sup>

작품에 나타난 작품 창작의 동기는 남편의 죽음(④·⑥)과 노년의 회고(①·②·③·⑤)이다. 노년에 이르러 자기 삶을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자기 삶을 돌아본다.

작가 자신인 일인칭 화자는 일대기식 구성을 취하여 크게 '성장, 혼인, 혼인 생활'의 이력을 고백한다. 이때 <어느 여자탄>과 <소회가>처럼 삶의 변곡점마다 정확한 연대를 연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사 작품에서 일생의 흐름을 쫓아가는 순차(順次)만 있을 뿐 시기를 특정하게 적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생을 돌아본다는 감각 속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

먼저 <어느 여자탄>·<소회가>의 경우, 정확한 연대를 밝히며 일대기를 술회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제된 구성을 보여준다. 이외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몇 가지 경험적 서사들이 에피소드화<sup>10)</sup> 하는

6) 정확한 창작연대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본문에서 아들들의 존재를 언급한 점, 1917년에 타계한 친정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1921년에 혼인한 장녀의 성혼을 미래시제로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91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가 이사회에 관한 상세한 연보는 장인진·남상권, 「<생조감구가>의 작가 고증과 작가 가문의 항일활동」, 『반교어문연구』 20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167쪽 참조.

7) 이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5집,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387~392쪽.

8) 전제강 외, 『경북 내방가사 1 -계녀가류·탄식가류-』, 북코리아, 2017, 116~121쪽. 이본으로 『북애가사』·『내방가사자료』·『신변탄식류 규방가사』 등에 실린 작품들이 있다.

9) 이대준 편저, 『낭송가사집』, 세종출판사, 1998, 23~38쪽.

경우가 많다. 즉 일생의 순차적 흐름이라는 감각 속에서 서술하면서도 그것은 정연한 구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sup>11)</sup>가 대부분이다.

먼저 집안사를 우선하면서 집단적 자아를 우선하는 작품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의 교체가 비교적 일정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특정 경험에 대한 서술이 긴 경우가 많다. 반면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개인적 자아가 우세한 작품들에서는 경험한 사실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배치되지 않으며, 감정의 경중(輕重)에 따라 축약 또는 확장의 정도가 심화된다. 이로 인해 일대기는 몇 가지 기억에 새겨진 경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도 하며, 일정한 결과로 수렴되는 전개이기보다는 열거식으로 배치된다.

전체적으로 작품 전반부인 ‘성장 과정’은 그 성격이 대체로 균질적인 편이며 비중도 적은 편이다. 자신이 귀에 받으며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부모의 은혜를 언급한다, 혼인 과정도 조혼의 형태로 이성지합(二姓之合)의 집안간 결연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부모의 ‘가리고 또 가리는’ 노력 끝에 명문가 자제와 맺어졌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어지는 ‘혼인 생활’ 부분은 개인사로서 저마다의 개인적 삶을 특징짓는 내용으로, 이 시기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전체 삶 속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길다는 면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작품별로 주요 화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10) 개인적이고 특수한 경험을 인상적 반응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에피소드화하는 구성을 취한다.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88쪽.
  - 11) 유기성이 결여된 내러티브의 산만함은 지배담론과의 길항 과정을 부단히 겪으면서 버리어온 모색의 흔적이다. 박애경, 박애경, 「자전적 가사와 젠더」, 『여성문화연구』 20집, 한국여성문화학회, 2008, 114쪽.

- ① <어느 여자탄> : 성장 과정, 친어머니의 죽음, 새어머니 맞음, 혼인날 풍경, 친정아버지의 유배, 시집 우귀(于歸), 형의 죽음, 친정아버지의 해배, 친정아버지 의병 창설, 시어머니의 죽음, 자녀 근황, 친정 방문 및 귀환
- ② <소회가> : 성장 과정, 자녀출생, 남편의 죽음, 자녀의 성혼, 아들의 죽음, 가족 피난, 이거(移居), 타지 정착, 후손 근황,
- ③ <대동가>: 성장 과정, 혼인, 자녀출생, 남편의 병환 및 치료, 딸의 죽음, 이사 계획, 시어머니 회갑연
- ④ <다전김씨부인>: 성장 과정, 혼인, 남편 상경, 남편의 병환, 남편 회복, 남편 타지 부임, 친정아버지 낙상, 아들의 죽음, 남편의 죽음
- ⑤ <이씨회심곡>: 성장 과정, 혼인, 시집살이, 남편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시부모의 죽음, 자녀 및 후손 근황
- ⑥ <부녀자탄가> : 성장 과정, 혼인, 남편의 출국, 남편의 귀국, 시아버지 죽음, 남편의 병환·쾌차, 가족의 병, 남편의 죽음.

위에 나타난 주요 화소를 추출해보면, ‘성장 과정(①·②·③·④·⑤·⑥), 혼인(①·②·③·④·⑤·⑥), 시부모 죽음(①·⑤·⑥), 자녀의 죽음(②·③·④), 남편의 죽음(②·④·⑤·⑥), 자녀 및 후손의 근황((①·②·⑤)’ 등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성장 과정으로 시작하여 자녀 및 후손의 근황으로 끝맺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일생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으로는 혼인 후 겪게 된 가족의 죽음, 특히 자녀 및 남편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20세기 초반 자기서사 가사에 재현된 삶의 주요 계기는 개인적 특수

성도 있지만 당대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 경성 유학과 외국 취업. 의병 활동을 비롯한 항일운동으로 인한 피난, 투옥 등의 영향 속에서 가문의 부침과 남편의 부재를 경험한다.

### Ⅲ. 가문 대 개인으로서의 나, 집단적 정체성과 개인적 자아

근대이행기에 들어 가사(家事) 일만을 해온 무지한 여성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계몽 담론이 형성됨으로써 대부분의 보편적 여성들은 개조의 대상이 되었다.<sup>12)</sup> 또한 1920년대 이후로는 신여성이 출현함에 따라 전통적 삶을 살아온 여성들은 구여성으로 호명되기 시작하면서 정체된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양반가의 여성이었던 규방가사 작가들에게 친정 및 시집의 집안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가문의식은 자존감을 지탱하는 하나의 중심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반가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제도적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규범적 분위기 속에서 유교적 소양을 쌓았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느 여자탄>의 작가로 알려진 이사호(李似鎬, 1870~1948)는 퇴계 13세손으로 출가 전 안동 예안에서 가학을 익힌 것<sup>13)</sup>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부분 양반가 출신인 자탄가 작가들은 '가문'(친정 또는

---

12) 『제국신문』 1906년 11월 16일 기사에서 필자는 가사(家事)일만 해온 불학무식한 여성은 신학문을 배운 남성에게 백년원수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니 딸을 잘 교육시키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녀 관계의 파탄의 한 원인으로 여성교육을 들고 있다. 백순철, 『근현대의 여성의 가사들』 개인적 욕망을 노래하다 : <식골색씨설은타령>, 『오늘의 가사문학』, 14집, 고요아침, 2017, 80~81쪽.

13) 남상권, 「생조감구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288쪽. 퇴계 이황의 후손이자 항일의병장 이증린의 딸로서, <생조감구가>를 지었다. 장인진·남상권, 앞의 논문, 2006, 143쪽.

시집)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드러낸다. 성장 과정에서 가문의 실명(實名)을 언급하고 있으며, 예법과 규범을 익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혼인 과정도 양가의 합의에 의한 조혼임을 말한다. 당시 사회에서는 조혼에 대해 강한 비판의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었는데<sup>14</sup>), 작품에서는 친정 및 시집을 구체적인 실명과 함께 명문가로 언급하며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가문에 대한 소속감은 기저에 깔려 있되, 상대적으로 집안의 일원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이 강한 경우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개인적 자아의 성격이 강한 작품이 있다. 전자인 집단적 정체성이 강한 작품에서는 자기 삶을 슬회하되, 집안 차원의 시각에서 회고한다. 이 경우에 ‘친정 부모 및 시부모에 관한 신변사, 집안의 우환, 그리고 자녀 및 후손의 근황’이 중심 내용이다.

1910년대에 지어진 <어느 여자탄>과 <소회가>는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이 두 작품에는 작자의 공적 얼굴인 ‘한 집안의 어른’이자 ‘안주인’으로서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먼저 <어느 여자탄>의 작가 이사호는 예외적으로 전체 내용 중 생애 전반부의 회상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혼인 전 상황과 이어지는 혼인 생활에 걸쳐 친정의 집안사를 세세히 읊는다. 친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새어머니를 맞이한 일, 자신이 혼인하기 직전에 닥친 친정아버지의 투옥과 유배 및 해배(解配), 이어지는 의병 창설, 넷째인 자신을 포함한 9녀의 탄생 등을 회상한다.

곧 새어머니에게서도 딸이 연달아 출생함으로써 대를 잇지 못했던 안타까움, 이후 양자 입적을 통해 가계를 계승한 기쁨, 친정아버지의 유배에 대해 자신을 비롯한 형제들이 딸인 까닭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죄의식을 집중적으로 표현한다. 반면에 혼례 직전에 아버지의 유배가 결정되었기에 파혼당할

14) 이숙인, 「20세기 초 구습(舊習) 혼인 비판과 여성 담론의 형성」, 『은지논총』 64집, 은지학회, 2020, 167~179쪽. ; 김수진, 「취미기사와 신여성: 서사양식과 주체위치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127쪽.

수 있다는 설왕설래가 많았음에도 자신의 복잡하고 심란했던 마음은 “풍설이 요란할디 이내 심회 엇더튼고 만심슈회 어이허리”라 하여 축약하여 드러낼 뿐이다.

이어 자신의 자녀들의 품성과 성공을 언급하며, 성공한 부녀 삶의 상징적 장면인 부임지를 내행(內行)으로 다니는 기쁨<sup>15)</sup>과 함께, 친족들 간 유대의식을 확인하는 잔치의 성황으로 끝맺는다. 즉 혼인 전의 친정 집안사로부터 이후 자녀의 성취(成취)에 이르는 언술을 통해 집안사를 중심축으로 자신의 이력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1914년에 지어진 <소회가> 역시 자신이 집안 어른이라는 집단적 자아가 회상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일인칭 화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닦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집안을 이끌어왔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회상 주체인 나에게 미친 정서적 과장보다는 집안 전체에 끼친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가문의 부침이라는 시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거기에서 오는 책무감을 토로한다.

이에 남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들을 혼인시키고 집안은 성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가장 큰 아픔이라 할 수 있는 아들의 죽음에도 그 슬픔보다는 손주를 거두어야 했던 상황을 술회한다.

번화다족 친봉들은 순순니 모혀들제/ 그 가운데 부용갓흔 현부아는 압압  
마다 정반일쇠/ 고디광실 외현의는 아즈의 학뉴들이/ 풍뉴귀남 쇠옥성이  
만방만경 훗터지고 (……) 문호 차즈 드난 빈긔 문전도 쇼쵸찬코 / 좌우별  
에 버린 노비 충의로 거헿하니 유가지풍 이리시며<sup>16)</sup>

15) <부여노정기>(연안 이씨)· <복선화음가> 등에서 부임지 행차의 내행은 양반가 여성으로서 성공한 삶의 상징적 장면으로 등장한다.

16) <소회가>, 한국가사문학관 미해제본 DB.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생략하고, 집안의 정경으로서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고대광실의 외현(外軒)에는 아들과 그 동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만방에 흩어지는가 하면, 문호를 찾아 드나드는 빈객이 많음을 자족적으로 언술한다.

또한 아들의 죽음에 손주를 거두고 집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각오에서 ‘차탄(嗟歎)도 무익(無益)’하다 하여 마음을 다잡고 있다.

차마차마 지하의 어린 즘명 일조일석 녹아지나/ 명명한 빅일지하 기절하고  
업더지면 세상만사 모를게나/ 오십여 세 첫손 어더 장중보옥 칠세구나/  
날을 보고 우난 거동 인심천고 엇지 보리 (……) 편편디로 물너안즈 전두랄  
헤여보니/ 열다섯 압히로다 츠탄도 무익하고/ 마음을 쪼잡아서 선늘한  
고퓌간의 고아 하나 어라만져<sup>17)</sup>

얼마 후 의병 봉기로 인해 가장집물(家藏 什物)도 챙기지 못하고 집안 식솔들을 이끌고 가향(家鄉)을 떠나 피난에 나선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녀자인 자신이 피난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타지에서 모진 고생 속에서도 정착하면서 집안을 지켜냈다는 안도의 마음으로 끝맺는다.

이 두 작품에서는 가문의 성세에 방점이 놓여 있으며, 집안 어른으로서의 역할 내지 책무감이 삶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집안의 흥기와 후손의 성황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각기 교훈적인 경계 혹은 자궁의 이야기로 끝맺는다. 이러한 화소들은 유교적 덕목들인 ‘삼종지도(三從之道), 효(孝), 부덕(婦德)’에 조응되고 있다.

그럼에도 작가들은 자신의 삶을, 가문을 위한 자기희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집안에 대한 책무감의 무게가 상당하지만, 집안 내 성원 간 정서적

---

17) <소회가>, 한국가사문학관 미해제본 DB.

유대의식이 강하다. 또한 안주인으로서 자신이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자족감이 깔려 있다. 이에는 여전히 사회적 진출이 힘들었던 보편적 여성으로서 대리보상을 통한 인정 욕망이 개재되어 있다.<sup>18)</sup>

한편 이 두 작품을 제외한 작품들에서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백 주체인 ‘나’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 가문의 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화자의 내면에는 자족감이 아닌 미묘한 균열의 파동이 일고 있다.

먼저 작품 <대동가>(1915)에서는 ‘자녀출생과 딸의 죽음, 남편의 병환과 치료, 이사 계획, 시어머니의 회갑연’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회고한다. 역시 회상 주체에게 주어진 책무에 해당하는 경험적 사실과 그것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딸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과 극복, 남편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한 고생, 현 상황 타개를 위한 이사를 계획하는 등 작가가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들을 이야기한다. 특히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경성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별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sup>19)</sup> 하지만 이를 위해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정성을 다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작품 후반부에서 종종 친지 간 유대의식과 성공적 삶을 상징해왔던 ‘집안 잔치’장면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시어머니의

---

18) 이러한 가문의식은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적인 당대에, 작가 자신의 사회적 성취를 대리 보상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로 기능하며, 종속적인 시집살이 속에서 친정 부모의 사랑에 대한 기억 못지않게 자기존중의식을 형성하는 연원이 된다. 유정선, 「20세기 초 자탄가에 재현된 친정방문과 자기표현의 의미」, 『이화어문논집』 61집, 2023, 45쪽.

19) “너이 가딩 그 병식난 셔을 가면 고치리라/ 영비범덕 큰 병원이 조흔 이스 만호리라/ 그말 듯고 식각하니 가장 위흔 이너 몸이 독난지도 모르리라 (……) 경성 천리 먼면길을 춘식간이 당도하너/ 전후좌우 와호지물 향영역시 잇건만난/ 운무갓한 이 심장이 조흔 줄을 모를너라/ 각죽 이스 헛말 디고 만첩고생 즈심하다” <대동가>, 한국가사문학관 해제본 DB.

수연(壽宴)은 온 집안 잔치로서, 집안 식구들이 모이는 경사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비회(悲懷)가 교집한다’고 하여, 화기가 도는 분위기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서글픔을 느끼는 자신의 내면을 고백한다.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신의 후손이 없고 살림살이가 보잘 것 없다는 사실이 더 도드라지게 다가오고 새삼스레 쓸쓸함을 느끼는 마음을 표현한다. “외뉘범스 부지하니 장단 업넌 춤이 디고/ 일점혈육 업서시니 슬흐경스 혼심흐고/ 형여생이 업서시니 범빅스가 군목흐고/ 저스니 부독하니 잔치츨님 바이 업고/ 가택이 험축하니 반기점딤 난감흐다”고 하여 혈육이 없고 형제가 없어 군색하며 재산이 부족하여 잔치 차림이 볼 것 없고 가택이 협소하여 그릇을 놓기 난감하다고 한다.

특히 잔치 자리에서 집안의 흠결이라 할 돌출적인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집안에서 살림 능력을 인정받는 종부(宗婦)가 그에 걸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종부가 ‘잔치 차림에 대한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음식을 먹어댐’으로써 손님들이 시장하게 되었다고 하여 회화적으로 묘사한다.<sup>20)</sup> 여기에는 여러 고생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의 쓸쓸함과 함께, 자신은 집안에서 그 노력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잠복되어 있다.

이러한 균열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작품은 <이씨회심곡>(1930)이다. 화자는 일찍 남편의 죽음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가계(家系)를 잇는 노력을 다한다. 이 작품 역시 집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왔는지에 관해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끝에 느끼는 감정은 자족감보다는 쓸쓸함이다.

20) “그둥이 우수울 일 교촌동부 헝투로다/ 스십남첫 즈부보고 디소스인 현철다고/ 선싱습아 먹서다가 승좌이 좌정하니/ 고등이라 혼읍시고 티겨리만 준득 썩서/ 범빅 츨님 만나보고 이리저리 단이면서/ 소소흔 육지미른 거래디로 다 먹으니 허다손님 시장흐다”, 한국가사문학관 해제본 DB.

다음은 혼인 과정을 표현한 부분이다.

“슈빅의박 낙낙일지/ 개발 물어 던지닷시 이 몸이 여기왔고/ 시집사리  
왔다 하니 가증 업는 시집이요/ 귀양사리 왔다하니 죄명 업는 귀양이라/  
사고무친 고독단신 이너 기리 어인일고”<sup>21)</sup>

설움 없이 자라다가 느닷없이 수백리 밖으로 “개발 물어 던지닷시” 여기  
왔다고 하여 혼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내비친다. 물론  
이에는 홀어머니로 자신을 키워낸 친정어머니를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개발’이라는 비하적 용어를 사용하여 그 과정에서  
하찮은 존재로 취급됐음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울분을 표출한다.

이러한 감정은 작품 전체에 배어있는 쓸쓸한 정조와 통한다. 어린 남편의  
죽음에 함께 따라 죽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점, 시부모를 모시며  
임종을 지킨 점, 양자 입적을 통해 가계를 이은 점<sup>22)</sup>을 회상하고, 조부모  
성묘에 대한 당부로 마치면서도 할 도리를 다했다는 안도감보다 허무감이  
깔려 있다. 노경에 이르러 자신을 ‘구무 지킨 배암’의 무기력함에 비유하는가  
하면, ‘흉몽(凶夢)’<sup>23)</sup> · ‘흑운(黑雲)’<sup>24)</sup>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삶을 축약해낸  
데에서도 회한의 감정이 엿보인다. 이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 의무를  
다해냈고 이제 자신 또한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를 받는 여유 속에서도 채워지  
지 않는 결핍감에서 연유한다.

이와 같이 주어진 도덕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균열의 조짐을 보여주는

---

21) 전재강 외, 『경북 내방가사 1 -계녀가류·탄식가류-』, 북코리아, 2017, 143쪽.  
22) 가까운 친족의 흉기의 아들 중석으로 후사를 삼아 육산 장씨를 맞이하여 그 사이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두게 되었다. 홍재휴, 『해주 북애가사』, 대건인쇄출판사, 2006,  
79~80쪽.  
23) “전심인가 차심인가 꿈이라도 흉몽일식”, 전재강 외, 앞의 책, 2017, 143쪽.  
24) “어허둥둥 사랑이야 흑운의 증긴 심신”, 전재강 외, 앞의 책, 2017, 148쪽.

작품들에서 나아가 더욱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으로서의 욕망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들이 있다. <다전김씨부인>과 <부녀자타가>는 모두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지어졌으며, 남편과의 관계와 그 사이에 일어난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구성한다. 외연적으로는 <다전김씨부인>과 <부녀자타가> 역시 집안을 이끌어온 역사로 읽힌다. 이때 남편의 죽음이 가져온 문제로서 집안에 닥친 시련의 차원보다는 자기 자신의 슬픔과 상실감, 원망 등을 집중적으로 토로한다. 남편과 나와의 관계성이 중심이 됨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개인으로서의 ‘나’의 삶에 집중하는 의식 속에서 나온다.

#### Ⅳ. 정서적 경험의 고백과 아내로서의 욕망

##### 1. 비유기적 언어와 정서적 경험의 고백

일대기 식의 자기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인데, 그것은 회상주체인 ‘나’의 정서적 경험을 중심으로 재현된다. 삶의 고비들을 겪으며 탄식을 불러온 갈등이 존재하고, 그때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풀어낸다.

이때 자기 서사 가사에서 볼 수 있는 에피소드화를 통한 비유기적 구성은 유교적 규범을 내면화한 작가들이 규범의식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축약과 생략의 언어가 섞여 들어간 결과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경험을 세세히 언급한다는 것이 부덕에 어긋난다는 자기검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시간 속에서 참아내야 했던 어려움과 희생에 대해서 많은 경우 생략하고 언급하지 않는다.

“오륙카 이난 집이 흐난 업셔 다 비엿다 히황심스 돌디 업셔 무정시월 보너드이”(〈다전김씨부인〉) · “슈순한 이 기순을 츠츠 다시 슈십혀여 지리한 이 세월을 헛되이도 찌너더니”(〈소회가〉) 등에서 ‘무정세월’·‘지리한

이 세월'로 축약하여 표현한 시간에는 고통의 감정이 함축되어 있다. 또한 “슈회를 붓칠 곳이 업서 세세공진 왕사가 심목의 서려 신묘년 후로 금년까지 올진 일기와 쇼회 상반 마암 중의 만분지일을 단문 단필로 기록” (<소회가>) 에서 쇼회의 만분의 일만을 기록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반일절 가간사를 고생고생 살아갈 제 허다 수십 천만 걱정 다 썩고 남은 간장” · “심중쇼회 다 풀자면 무궁첩첩 한 없어라” (<부녀자탄가>) 라 하여 ‘허다 수십 천만 걱정과 무궁첩첩한 심중 쇼회’를 다 말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평면적이고 순차적이 아닌 다층적 서사의 기법<sup>25)</sup> 역시 자기 표현의 장치로 활용된다. 작품 속에서 ‘타인의 발언 인용, 탄식의 반복, 단속적(斷續的) 시간의 구성’ 등은 우회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작품 <대동가>에서는 다른 이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써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부인이 건네는 위로의 말을 통해 자기 부부가 딸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곧 ‘딸을 잃음이 젊은 부부에게는 큰 장애가 될 수 없으며, 곧 옥동기자(玉童祈子)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언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sup>26)</sup> 결말 부분에서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느닷없이 극락세계의 꿈 이야기로 건너뛰는 것<sup>27)</sup>으로 드러낸다.

한편 <부녀자탄가>에서는 결말 부분에서 동일한 통사구조를 지닌 탄식의 수사를 반복함으로써 남편을 잃은 상실감을 드러낸다. 여기서 한탄은 전체

25) 백순철, 앞의 논문, 2000, 89쪽.

26) “위로흐난 저 노파난 친사로 지천이라 손 좁고 흐난 마리/ 놀갓탄 이 인심도 천지간이 스라시니 /흐물며 스십춘다 부부 서로 절머시니/ 옥동기즈 탄식흐면 춘설전흐 될거 시니/ 부디 마음 기혁하야 나를 보라 위로하라”, 한국가사문학관 해제본 DB.

27) “불명원흐 든는 소리 감죽 놀느 기다로니 월빅풍청 익섬흐디 동방이 실손 울고 병생의 시디치디 정신이 쇠락흐니 극낙세기 이 아인가”, 한국가사문학관 해제본 DB.

서사의 균형에 맞지 않게 돌출적으로 확장된다. 그리하여 탄식의 반복은 정돈된 흐름을 내파(內破)하며 심리적 갈등을 문면(文面)으로 끌어올리는 기능을 한다.<sup>28)</sup>

이와 같이 이야기 흐름의 균형을 깨는 비유기적 언어는 자신의 경험적 진실<sup>29)</sup>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른 것이다. 1910년대 작품인 <어느 여자탄>과 <소회>의 경우, 책무를 다했다는 성취의 서사인 반면에,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점차 삶의 고비마다 느꼈던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그 삶의 고비들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도달하는 현재의 성패(成敗)로 수렴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은 책무와 연관된 공과(功過)나 성패 등 하나의 결과물로 환원될 수 없는 경험치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젊은 시절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으로 내면화해왔던 것들이 노년에 이르러 의문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모두 끝마친 때에 도리어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씨회심곡>에서 잘 볼 수 있다.

## 2. 아내로서의 감정과 욕망의 표현

대부분의 자기 서사 가사에서는 며느리이자 딸,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관계 맺음 속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sup>30)</sup> 종래에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술회한다는 점은 여성 자기 서사의 특징으로 지적되어왔다.

먼저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관계 맺음이 표현되는 경우는

---

28) 탄식의 가치는 바로 이 지점, 즉 지배층의 이념과 그 외연이라 할 수 있는 서사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내면의 갈등을 극한까지 드러내는 데 있다. 박애경, 앞의 논문, 2008, 122쪽.

29) 백순철, 앞의 논문, 2000, 89쪽.

30) 박혜숙, 「여성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18집, 한국여성문화회, 2002, 17쪽.

많지 않다. 시집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시부모를 비롯, 시집의 가풍 등에 관한 언술에 있어서는 대체로 상찬(賞讚)으로 정형화된 편이다. 대개의 경우 시부모는 재질과 역량이 부족한 자신을 포용하고 바르게 이끄는 존재이다. 또한 시부모의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자신의 정성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마음을 토로한다.<sup>31)</sup>

마찬가지로 친정 부모에 대한 감정도 그리움과 죄의식으로 대체로 일치한다. 상대적으로 친정 부모가 차지하는 심리적 비중은 크지만 친정 부모에 대한 감정 자체는 한결같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그럼에도 이러한 친정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여성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합리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면에 이 시기 자탄가 내 자기 서사 가사의 특징은 점차 남편과의 관계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작가의 감정과 욕망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견인하는 존재는 남편으로서, 남편의 존재는 이 시기 자기 서사의 중심에 있다. 결과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는 작가의 감정과 욕망이 절제로 덧씌워진 외연을 뚫고 나오는 계기가 된다.

이에 총 6편의 자기 서사 가사 중 4편에서 남편의 죽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중 남편의 죽음을 짧게 보고하는 <소회>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에서 남편의 죽음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 축말로 작용할 만큼 의미가 크다. 특히 이중 2편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지어졌는데, 이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상실한 욕망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기왕에 규방가사 속 남편은 '사군자(事君子)'의 덕목을 실현하는 존재로,

---

31) 예외적인 경우로는 노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집안일을 상의할 수 없는 시아버지와 이질적인 시누이( <부녀자탄가>)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등장할 뿐이다. 이대준 편저, 앞의 책, 1998, 25~26쪽.

32) 친정 어머니의 임종을 못 지킨 죄의식(<이씨회심곡>)· 남편의 병구완에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과부가 된 것으로 인해 불효한다는 죄의식(<다전김씨부인>)을 토로한다.

내조를 통해 잘 받아들여야 하는 상대였다. 남편의 존재를 뜻했던 ‘사랑(舍廊)’이라는 지시어는 내외법(內外法)에 기반한 심리적 거리감을 반영한다. 그런데 “칠정을 품수흐니 히로이라 가진 마암 남녀가 다를손야” (<대동가>) 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희노애락의 마음을 가졌다는 점에서 남녀가 같다고 말한다. 이제 음양론에 근거한 남녀차이가 아닌 감정을 지녔다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대등한 존재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먼저 <이씨회심곡>의 저자 진성 이씨에게 있어 어린 나이에 요절한 남편의 기억은 많지 않다. 혼인 당시에“십삼 세 어린 양반 부모 안전 영석하고 어리석기 그지업니 동서분간 어이 아리”<sup>33)</sup>라 하여 십삼 세 어린 신랑이 응석받이였다고 회고한다. 그럼에도 노년에 떠올리는 어린 신랑에 대한 기억은 자신이 누리지 못한, 채워질 수 없는 결핍감<sup>34)</sup>을 나타내고 있다. 혼인한 지 일 년 만에 요절했음에도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며“우슴 치고 녀달니니 어정어정 쥬적거름 눈의 삼삼 보고저라”<sup>35)</sup>라는 발성에서 애달픈 그리움이 묻어난다. “늑의홍상 연지분이 곱고도 살아터니 일장춘몽 꿈을 썼다”<sup>36)</sup>라는 독백에서 보듯이, 부부의 정을 누리지도 못한 채 꽃다운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결핍감이 배어있다.

보다 자신의 감정을 직정적(直情的)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은 <다전김씨 부인> · <부녀자탄가>이다. 작품 속 남편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정(情)’을 나누는 상대이다. 상호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삶의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 남편의 부재에 따른 고통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표현한다. 곧 남편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자신이 겪고 있는

33) 전재강 외, 앞의 책, 2017, 145쪽.

34)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고독하다고 간주되는 삶을 살아야 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이씨회심곡>을 통해 진행된 자기서사의 동력이다. 이은화 김윤희, 앞의 논문, 2018, 315쪽.

35) 전재강 외, 2017, 앞의 책, 147~148쪽.

36) 전재강 외, 2017, 앞의 책, 145쪽.

감정적 고충인 그리움,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 토로한다.

<다전 김씨 부인>은 작가가 26세에 남편을 여의고 쓴 가사이다. 남편의 상경과 병환, 회복, 남편과 다시 이별, 아들의 죽음 등 주요한 경험들을 술회하되, 남편과의 관계라는 부부의 시각에서 회상한다. 남편의 경성 유학으로 일 년에 두 번 있는 상봉을 기다리던 시간, 병환으로 함께 보냈던 귀한 시간 등 생애 통틀어 함께 지낸 시간을 짚아보며 그 시간이 짧았음을 원망한다.

신씩 및날 집이 이셔 조석을 승면하이/ 심중이 은근정이 무무정을 알  
듯 말 듯/ 진주 짜 스범학교 실음츠로 치형하이/ 스읍정도 생각하면 일변한  
심 잇근이와/ 전일이 놀닌마암 츠마 이별 못할니라<sup>37)</sup>

이고이고 이 양반아/ 좌우싱면 이 강손이 뉘얼 바리 너 와서며/ 혈속업난  
셔시가문 뉘얼 바리 너 왔근디/ 승결갓 독헌 과식 너스 츠마 못 당괴소/  
스후스 생각하이 천만가지 원혼이라 (……) 부부이럼 신연간의 동실동거  
및날인고<sup>38)</sup>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조석(朝夕)으로 상면(相面)’하게 되면서 정이 깊어졌던 기쁨, 이어 병이 낫고 학교에 취업하게 되어 다시 이별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 든 정으로 인해 더욱 허전했었던 마음 등 정서적 교류에 대해 세세하게 표현한다.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도 그 자체보다 남편에게 알리느냐의 유무에 대해 더욱 갈등한다.<sup>39)</sup> 또한 ‘혈속 없는 서씨 가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왔겠느냐’고 반문한다. 이제 홀로 남은 자신이 ‘평생 여막 속 산

37) 한국가사문학관 미혜제본 DB.

38) 한국가사문학관 미혜제본 DB.

39) “여즈이 본심얼 죄송하여 말 못하고/ 일변은 생각기로 깃지익 잇난 양반 승심도  
염여디야/ 인이즘적 하야다가 다시 췌천 생각하이 일후익 오난 날익 아희를 좇기  
되면 할말리 업실트리”, 한국가사문학관 미혜제본 DB.

귀신'이며, '정 부칠 곳이 없다'<sup>40)</sup>고 하여 절망감을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이 길러 성취시킬 것을 다짐하며 할 일을 다한 후에 남편 뒤를 따라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부녀자탄가> 역시 남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남편의 출국과 귀국, 남편의 병환과 쾌차, 남편의 간호받음, 남편의 죽음'이라는 화소들이 이어지고 있다. 역시 남편은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삶의 동반자로서 "하루 이틀 날이 가고 한달 두달 달이 가서 부끄럼은 없어지고 새록새록 애정이라"<sup>41)</sup>고 하여 정을 나누는 상대로 나타난다. 일본으로 일하러 감으로써 헤어져 지낸 시간 속 외로움과 기다림<sup>42)</sup>, 시간이 흘러 귀국함으로써 함께 했을 때의 기쁨 등 정서적인 경험의 표현에 집중한다. 남편의 죽음을 놓고서는 앞으로 펼쳐질 고충과 자녀의 혼인사를 함께 의논할 상대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 애통해한다.<sup>43)</sup> 이로써 자기 연민과 남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드러난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당대에 구여성이 무식함으로 인해 남편과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의 동화가 없는 존재로 재현<sup>44)</sup>되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작가들의 생각 속에 부부간 정은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이며 삶의 굴곡을 함께 한 경험에서 쌓여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슬픔을 노래한다. 이러한 생각에는 자기 내면의 욕망이자 개인으로서 누려야 하는 행복에 대한 자각이 놓여 있다. <부녀자탄가>의 "우리 부부 만난 지가 이십여

40) "오려서난 부모 인정 중정하야 부부인정 늘거서난 즈손 인정/ 칭칭이 싱긴 정인 천만구부 디건만난/ 청연승과 이 일신고 정 부칠 곳 전혀 업닌"

41) 이대준 편저, 앞의 책, 1998, 24쪽.

42) "만리타국 편히 가소 떠나는 맘 모르오나 보내는 맘 어떠할까/ 현해탄 넓은 바다 연락선은 누가 냈나/ 경부선 닭은 사람 그도 또한 원수로다/ 유정낭군 이별하고 독수공방 누웠으니/ 구비구비 수심이요 가지가지 화정(火症)이라", 이대준 편저, 앞의 책, 1998, 25쪽.

43) "저 자식들 고이 길러 남혼여가 치를 적에/ 둘이 서로 키운 자식 누구보고 수의할소/ 애닦도다 낭군이여 야속할사 가군이여", 이대준 편저, 앞의 책, 1998, 31쪽.

44) 임정연, 「근대 젠더담론과 아내라는 표상」, 『배달말』, 배달말학회, 2009, 474쪽

년 그동안에 객지 생활 몇 해이며 포병(抱病)으로 몇 해던고 이리저리 계산하면 행복으로 몇 해던가”<sup>45)</sup>라는 자문(自問)은 이러한 자각에서 나온다.

## V. 삶의 재현, 도덕적 책무감과 자기 욕망의 표현

자기 삶을 회상하고 있는 자기 서사 가사들은 자탄가의 문학적 관습을 활용하여 자신의 일대기를 소화한다. 탄식의 정조를 바탕으로 감정을 표현하되,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을 읊음으로써 구체성을 획득한다. 이는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점차 무게중심이 고난 극복의 교훈적 서사에서 감정에 얽힌 경험 자체의 서사로 옮겨가고 있다.

자탄가 내 자기 서사 가사의 통시적 흐름 속에서 전사(前史)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은 19세기에 지어진 <경자록>(능주 구씨, 1872)<sup>46)</sup>이다. 이 작품은 자탄가와 계녀가의 경계에 위치한 작품으로 보이는데, 자기 삶을 읊으며 내조와 부덕의 윤리를 드러내고 가문의 교육서로 활용되기도 한 자기 서사 가사이다.<sup>47)</sup> 화자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20세에 출가하여 효성을 다해 시부모를 모시던 중,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을 겪는다. 곁에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만이 있을 뿐 여력 있는 친지가 없어 천지 간 의탁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sup>48)</sup> 그럼에도 인내와 희생 속에 ‘사대향화(四代香火) 지성으로 받들었네’·‘없든 문호 다시 열고 고목 끝에 영화로다’라 하여 제사를 받들고 시어머니와 힘을 합쳐 가산을 모은다. 그리하여 아들을

---

45) 이대준 편저, 앞의 책, 1998, 30쪽.

46)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268쪽. 이본이 전제강 외, 앞의 책, 2017, 114~115쪽에 실려 있다.

47) 이정옥, 위의 책, 269쪽.

48) “적적무인 빈방안에 수습할 길 막연하다”·“양천통곡 길이한들 그 뉘 와서 위로하리”·“삼대일문 삼인일내”·“광대한 천지 간에 의탁할 곳 전혀 없네”·“외로울사 외로울사 우리 삼대 신세도 가공하다” 이정옥, 앞의 책, 1999, 270쪽.

교육시키고 성취(成娶)시킴으로써 집안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삶의 이력은 봉제사를 비롯한 부덕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 가문의 문호를 열었다는 성공 서사로 요약된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느꼈던 자신의 복잡다단한 감정은 “그렇저렇 세월일내”<sup>49)</sup> · “아무리 그러한들 감구지회 없을손가<sup>50)</sup>”라 하여 ‘그렇저렇’ · ‘감구지회’(感舊之懷)라는 간략한 용어로 축약된다. 그 결과로 공적 덕목을 내세움으로써 교훈적 성격이 강하다.

이어지는 1910년대 작품인 <소회가> · <어느 여자탄>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집안사를 우선한다. 이 작품들에서 화자 역시 집안일에 관하여 책무감을 느끼고 가문의 성세를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자기희생의 의식보다는 대리 보상을 통한 성취감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자신의 욕망보다는 윤리적 덕목을 우선한다. 가계(家系)를 계승해야 한다는 책무감과 집안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등은 자신이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집안과 규범을 우선하는 중세적 억압에 따른 것<sup>51)</sup>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보다 자기감정에 충실함으로써 욕망에 대한 자각을 보여준다.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을 술회하며 거기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 작품들에서는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강한데, 이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남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을 누리고자

---

49) “추위도 더운 듯이 고파도 부른 듯시 옷끈만 잘나 매고 그렇저렇 세월일내”, 이정옥, 앞의 책, 1999, 270쪽.

50) “없든 문호 다시 열고 고목 끝에 영화로다 아무리 그러한들 감구지회 없을손가”, 이정옥, 앞의 책, 1999, 271쪽.

51) 자전적 성격의 가사는 20세기 이후에도 중세적 억압과 근대가 주는 충격이라는 이중의 질곡 속에 놓인 여성의 유력한 문화 표현의 통로로 기능해왔다. 박애경, 앞의 논문, 2008, 131쪽.

하는 욕구를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작품의 성격이 점진적으로 변화한 배경에는 근대이행기인 20세기 초반의 시대적 상황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는 부부 중심의 근대적 가족관계가 부상하고 양치현모의 이념<sup>52)</sup>과 주부 규범<sup>53)</sup>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다. 곧 가문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결혼 관계가 재편되어가고, 결혼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부부간의 공감과 유대로 설정되어가는 변화양상을 완만하게나마 반영<sup>54)</sup>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혼인 후 여성의 지위 확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며느리와 어머니의 역할이며 상대적으로 아내의 역할에는 크게 무게가 두어져 있지 않았다.<sup>55)</sup> 그러던 것에서 점차 부부 중심의 근대적 가족관계가 부상함으로써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규방 가사 작가들은 전통적으로 양반가 여성으로서 유교적 소양을 내면화해온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를 통과하며 계몽담론이 부상하고 여성 간 사회문화적인 위계가 형성되어 구여성으로 호명되면서 그 사회적 입지는 더욱 좁아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인 1910~1930년대에 조흔한 구여성 본체가 남편의 자유연애를 가로막는 수동적인 장애물로 설정된 서사의 유행<sup>56)</sup>은 본체인 여성의 위상을 반영한다. 곧 구여성

---

52) 근대 이후 주부·현모양처 등으로 여성의 젠더 역할이 재정립됨에 따라 며느리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아내나 어머니의 그것에 비해 축소, 약화된다. 이영아, 「한국 근대 주부 개념의 정착과 주부 역할의 변화 양상」, 『구보학보』 25호, 구보학회, 2020, 230쪽.

53) 주부는 기본적으로 근대가족의 형태를 지향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서, 주부라는 개념은 여성이 부부 중심의 핵가족 내에서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호명 방법이다. 이영아, 위의 논문, 227쪽.

54) 배상미, 「근대적 인간관계의 전사: 이인직의 혈의 누 귀의 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304쪽.

55) 백순철, 앞의 논문, 2017, 76쪽.

아내는 조혼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이면서도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목소리는 박탈당하고 존재 자체가 생략, 삭제<sup>57)</sup>되고 있었다. 작가 이사호가 자신의 다른 가사 <생조감구가>(1930)에서 엄숙한 어조로 자유연애 및 이혼 요구의 부당성을 역설<sup>58)</sup>하던 이면에는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향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자기 서사 가사 작가들은 조혼의 당사자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서도 아내로서의 감정과 욕망을 자신들의 육성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딸이자 며느리로서의 정체성 면에서는 유교적 인습을 고수하는 면이 강한 반면에, 아내로서의 정체성 속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아내로서 남편과 정을 나누는 상대로 위치하고자 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하고자 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20세기 초반 자기 서사 가사들은 이후 창작된 20세기 후반 생애가사를 참조해보면 그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0세기 후반 생애가사는 소통의 일차적 대상으로 자녀를 상징하고 있으며,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가족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특징<sup>59)</sup>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초반 자탄가 속 자기 서사 가사는 아내로서의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삶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56) 염상섭의 <만세전>, <삼대>, <무화과>, 이기영의 <고향>, 채만식의 <과도가>, 이광수의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등이 대표적이다. 전봉관, 「본처의 관점에서 본 한국근대서사」, 『현대소설연구』 7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270쪽.

57) 임정연, 앞의 논문, 2009, 467쪽.

58) “계 인격은 싱각잔코 조강지처 상식 업고 무식다며 각식죄 잡다못히 음형으로 디죄얼 거 의혼소송 참혹한 비상지원 복종절스 아니할가 (……) 제 인격 유려하면 부인에 유무식 계관일가”, 이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5집,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415~416쪽.

59) 천혜숙, 「근작 여성생애가사의 담론 특성과 여성문화적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24집, 실천민속학회, 2014, 18~41쪽

## Ⅵ. 맺음말

20세기 초반 자탄가 내 자기 서사 가사는 일인칭 화자의 자술(自述)이라는 문학적 전통 속에서 자기표현의 장치를 마련하여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탄식의 정조를 깔고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는 것은, 작가들이 여전히 인습의 질곡 속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대 전통적 삶을 살고 있었던 작가들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었으면서도, 근대를 통과하면서 계몽담론과 신여성론을 통하여 수동적이고 정체된 여성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자기 서사 가사는, 작가들이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전체 삶을 회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 존재의 욕망을 자각함으로써 점차 자신이 누리하고자 하는 부부간 정(情)과 행복에 대한 욕망을 표현해내고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권영철 편,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 출판부, 1987, 95-102쪽.  
이대준 편저, 『낭송가사집』, 세종출판사, 1998, 23-38쪽.  
이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내방가사자료」,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5집,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 387-392쪽 · 415-416쪽.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268-269쪽  
전재강 외, 『경북 내방가사 1 -계녀가류 · 탄식가류-』, 북코리아, 2017, 114-115쪽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해제본 · 미해제본 가사 DB

### 2. 단행본

- 홍재휴, 『해주 북애가사』, 대건인쇄출판사, 2006, 79-80쪽.

### 3. 논문

- 고순희, 「일제강점기 일본 경험과 규방가사」, 『동북아문화연구』 제3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153쪽.  
김수진, 「취미기사와 신여성: 서사양식과 주체위치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127쪽.  
남상권, 「생조감구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288쪽.  
박애경, 「자전적 가사와 젠더」, 『여성문학연구』 20집, 한국여성문학회, 2008, 114쪽 · 122쪽.  
박혜숙 · 최경희 · 박희병,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7-28쪽.  
박혜숙, 「여성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회, 2002, 17쪽.

- 배상미, 「근대적 인간관계의 전사, 이인직의 혈의 누 귀의 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호, 2013, 304쪽.
- 백순철, 「구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88쪽.
- 서영숙, 「여성 일대기 가사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333쪽.
- 유정선, 「20세기 초 자탄가에 재현된 친정방문과 자기표현의 의미」, 『이화어문논집』 61집, 2023, 45쪽.
- 이숙인, 「20세기 초 구습(舊習) 혼인 비판과 여성 담론의 형성」, 『은지논총』 64집, 온지학회, 2020, 167-179쪽.
- 이영아, 「한국 근대 주부 개념의 정착과 주부 역할의 변화 양상」, 『구보학보』 25호, 구보학회, 2020, 227쪽 · 230쪽.
- 이은화 · 김윤희, 「20세기 초 내방가사 <이씨회심곡(李氏懷心曲)>의 자기서사와 부제를 기억하는 방식」, 『고전과 해석』 26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306쪽.
- 임정연, 「근대 젠더담론과 아내라는 표상」, 『배달말』 45집, 배달말학회, 2009, 467쪽 · 474쪽.
- 장인진 · 남상권, 「<생조감구가>의 작가 고증과 작가 가문의 항일활동」, 『반교어문연구』 20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143쪽 167쪽.
- 전봉관, 「본처의 관점에서 본 한국근대서사」, 『현대소설연구』 7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270쪽
- 천혜숙, 「근작 여성생애가사의 담론 특성과 여성문화적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24집, 실천민속학회, 2014, 18-41쪽.
- 최규수, 「<여자자탄가>의 자료적 실상과 특징적 면모」, 『어문연구』 43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289-300쪽.

---

**Abstract**

THE MEANING OF MEMORY AND EXPRESSION OF DESIRE  
REPRODUCED IN SELF-NARRATIVES IN JATANGA IN THE EARLY  
20TH CENTURY

YU JEONGSUN (YU, JEONG SUN)

In the early 20th century, gyubangasa writers described their life history by relying on the literary tradition of jatanga. The target works of this study are six self-narrative gasa of jatanga created between the 1910s and 1930s. The motivation for creating the work is reminiscence of old age and the death of her husband. In particular, her husband's death became an opportunity to realize her lost desires.

These self-narrative gasa show the pendulum swing between the collective ego that puts family first and the individual ego that is conscious of individual desires. In their early works, the authors prioritize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as the mistresses of the house, whereas in their later works, they become more aware of their emotions and desires with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husbands and express them.

In the tradition of jatanga, I, the subject of the confession, describe experiential facts in detail, but reminisce with a focus on emotional experiences. At this time, inorganic composition and multi-layered techniques rather than refined language are used as devices for self-expression. And the person who pushes her feelings and desires to

the surface is her husband, and her feelings and desires toward her husband are expressed in detail.

At the time, Gyubanggasa writers were referred to as old women, defined as passive and stagnant women, and were otherized. Old women writers, whose voices were omitted from popular narratives of the time, tell us about their upbringing through the gasa of their narratives. The self-narrative writers of this period have the characteristic of looking back on their lives and expressing their own desires for marital affection and happiness through their identities as daughters and wives.

Key Words : jatanga, self-narrative, early 20th century, collective identity, personal self, emotional experience, husband, wife, old women, moral responsibility, desire, expression